

눈에 띄는 간판으로 손님을 유도한다



간판은 경영자의 얼굴이다. 그런데 의외로 무성의하게 방치된 간판들을 볼 수가 있다. 조금만 신경쓰면 손님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간판. 그 설치방법 등을 알아본다.

한 점포에 4종류의 간판이 필요

간판은 점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특히 제과점에 있어서는 점포외장과 함께 건물과 조화를 이룬 간판이 판매에서 큰 역할을 한다.

간판은 경영자의 얼굴이며 영업행위에 있어서 정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간판이 의외로 무신경하게 취급되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좋은 위치, 맛과 서비스면에서 만점이라 할 정도의 훌륭한 점포임에도, 점두에 플라스틱으로 된 촌스러운 색채로 만들어진 간판만 걸고 있거나, 또는 간판이 지저분하고 색깔이 바래 읽기 어려운 등의 점포를 볼 수 있다.

점포를 둘러싼 간판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다. 이 중 다음 4종류의 간판은 한 점포에 꼭 필요한 것이다.

① **돌출간판** : 건물의 정면이나 측면에 돌출되게 설치, 손님이 도로상 먼 곳에서도 볼 수 있게한 간판. 처마에 매달거나 거는 방법때문에 「행어간판」 또는 건물 윙에 달려있어 「윙간판」이라고 부른다.

이 간판은 2층이상 건물에, 차도에서 4m, 인도에서 3m 높이 이상에 설치해야 한다.

② **스탠드간판** : 점두에 설치하는 것으로, 통행객이 통행중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기 때

문에 점내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높은 간판이라 할 수 있다. 사방등간판이 여기에 속한다.

③ **정면간판** : 건물의 정면에 설치되는 평면간판.

④ **폴(기둥)식간판** : 인도로부터 3m 이내에 설치되는 간판으로 높이 10m가 넘지말아야 한다.

좋은 간판을 만들기 위한 6가지

간판 작성은 거의 외주전문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맡기는데 그치지 말고 자신의 경영방침이나 내용 등 자신의 의향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① 무엇을 알리고 싶은가

점포명, 업종명, 주력상품, 서비스내용, 영업시간, 저렴한 가격 등의 모든 요소를 동시에 호소하는 것은 효과를 반감시킨다. 점포명보다 주력상품의 이름을 크게 부각시키고 싶거나 「24시간 영업」이라는 특색이 있으면, 그 문자를 눈에 띄게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어떤 문자로 알리고 싶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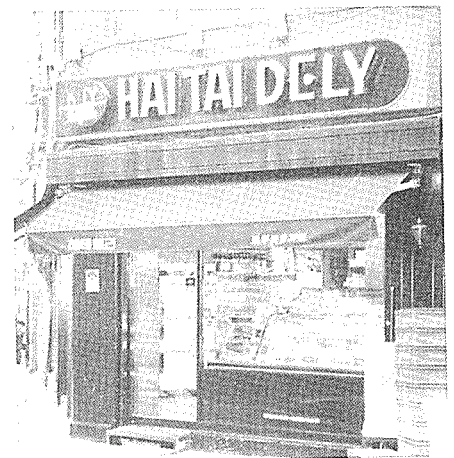
어떤 문자로, 숫자는 어느만큼 하는가를 생각한다. 문자는 한글, 한자, 영자 등이 있다.

무조건 영문자를 사용하거나 의미를 알 수 없는 외국어는 피하는 것이 좋다.

③ 어떤 서체를 사용하는가

서체에는 가는 글씨, 굵은 글씨, 붓글씨, 장식화된 글씨 등 여러가지가 있다.

너무 복잡하게 디자인된 문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멀리서도 눈에 잘 띄는 서체를 선택해야 한다.



간판의 문자나 서체에는 점포명으로서의 문자, 상품명으로서의 문자, 그리고 서비스의 내용을 전하는 문자로 나누어 진다. 각각의 목적에 맞게 문자의 크기와 서체를 결정해야 한다.



④ 어떤 그림을 넣는가

문자뿐 만이 아니라 그림(일러스트)을 넣고 싶을 때에는 그것이 심볼마크, 또는 캐릭터(애니메이션)인가, 요리재료에 대한 그림 혹은 요리 이미지에 대한 그림(요리사, 요리기구 등)인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생각한다. 문자보다 그림을 주체로 하여 시각효과를 노린 간판도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다.

⑤ 어떤 색채로 호소하는가

색채는 그 점포 방침에 따른 고유색깔(로고칼라: Logo Color)이 있으면 당연히 그 색을 사용해야 한다. 로고칼라가 없는 경우 건물과 매치되는 색, 손님층에 맞는 색을 골라 사용한다. 예를 들면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모던하고 심플한 색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⑥ 야간에도 눈에 띄게

조명효과를 사용해 야간에도 아름답고, 눈에 잘 띄게 해야 한다. 밝은 것과 빛을 방사하는 것은 눈에 잘 띈다. 그 빛이 점멸한다거나 움직인다면 더욱 눈에 잘 띌 것이다.

점포명은 단순명료한 것이 좋다.

간판과 점포명의 조화는 중요한 과제이다. 간판은 그 점포의 업종이미지나 경영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포인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름이 주는 이미지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강한 관심을 갖게 한다. 최근 생활용품명에도 개성과 재미가 있고, 알기쉬운 이름의 상품이 히트하고 있다. 이것은 제과점 이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전화로 약속장소를 지명할 때, 가까이 있는 점포이름이 말하기 어렵다면 당연히 먼 곳이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점포명을 댈 것이다. 「카페 드 프레일」 「카페 드 티파니」 보다는 「아이비스」가 기억에 남을 것이다.

점포이름도 스내, 커피숍 등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다. 점포문자에도 한글, 한자, 영문, 한·영문 혼용문자 등 의미를 알 수 없는 것도 적지 않다.

「명동에 있는 뭐라하는 제과점」 하면 안된다. 결국은 이름을 잘 아는 점포로 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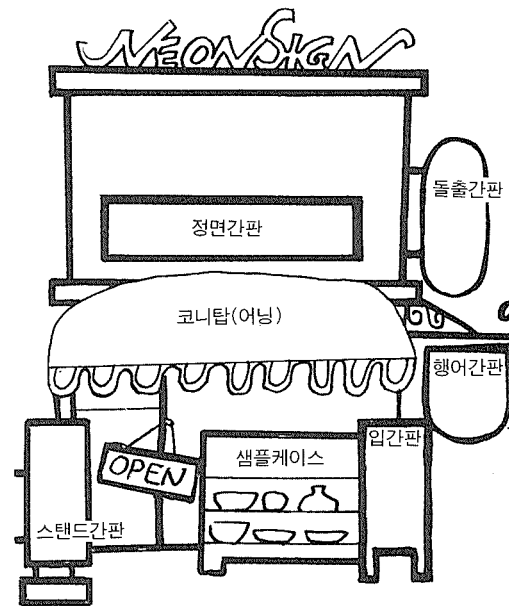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① 상품의 이미지 ② 부르기 쉬운것(2자~4자) ③ 기억이 용이한 것 ④ 국제성 ⑤ 독창성 ⑥ 상업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코니탑(어닝)으로 점포이미지 살리기

점포외장에는 코니탑이 많이 사용된다. 코니탑이란 입구나 창가 등의 차양, 비를 긋는 것인데 최근에는 소재나 색채도 다양화되어 점포외장의 액센트나 간판의 역할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장의 코니탑이 점포의 독자적인 개성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유럽의 길을 걷고 있으면, 이 코니탑을 훌륭히 사용하고 있는 점포를 많이 볼 수 있다.

〈점포외장의 구성요소〉



코니탑의 특징은

- ① 코스트가 적다
- ② 시공이 간단하다(교체가능하여 언제나 새로운 느낌을 연출)
- ③ 내구성이 강하다
- ④ 색상과 무늬가 다양하다
- ⑤ 완전 방수이다.
- ⑥ 문자, 그림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등을 들 수 있다.

코니탑의 패턴은 여러가지로 직선과 곡선의 구성이 있으며 그 이미지(분위기)로 집객을 연출할 수 있다. 또한 상품이나 전화번호 등을 넣은 어닝사인으로, 점포표정의 액센트로도 활용할 수 있다.

코니탑은 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색이 요란한 것은 피하고 조화를 이루는 색상을 생각해야 한다. 